FX Market Daily

2024-02-26

전일동향

전일대비 2.30원 상승한 1,331.00원에 마감

23일 환율은 전일대비 2.30원 상승한 1,331.0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1개월물 하락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00원 하락한 1,327.70원으로 개장했다. 하락 출발한 환율은 간밤 뉴욕증시 호조에 따른 위험선호 분위기에 하락 압력을 받았으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조기금리인하 경계 발언 영향에 하락폭을 반납했다. 오후장에서 환율은 위안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을 키우며 1,331원까지 레벨을 높여 1,331.00원에 최종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4.4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84.01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27.70	1331.40	1327.00	1331.00	1329.30
엔화	882.81	885.59	880.57	884.35	-
유로화	1437.88	1442.80	1435.26	1440.44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21	-4.92	-12.38	-26.85
결제환율(수입)	-0.03	-4.18	-10.81	-23.76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위험선호 둔화에... 1,33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9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331.00) 대비 0.60원 하락한 1,328.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성장주 리스크오프와 위안화 약세에 동조되어 상승 압력이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주발 글로벌 위험선호가 둔화되어 주말간 차익실현이 이뤄져 국내증시도 외국인 순매도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10년 국채금리는 채권지수 리밸런싱을 앞두고 수요가 회복되며 7.17bp 하락했다. 엔화는 국채금리 하락을 쫓아 상승했다.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1월 물가 상승률 반등으로 금리인하를 결정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금리 추가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인하는 올해 늦은 시점에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위안화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점은 역외 롱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보여지며 수급상 결제수요가 우위에 있어 환율 상승압력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출업체 네고물량 유입은 상단을 경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27.00 ~ 1337.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493.74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60원↓
	■ 美 다우지수 : 39131.53, +62.42p(+0.16%)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9.26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342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